

## 21세기 충남의 위상과 발전 전망



이 강 선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1. 머리말

내년부터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낱씨 체계상의 한 변화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과거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세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욱 큰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으는 한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의 경우도 새로운 세기는 많은 변화와 도전과 성취의 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변화를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다가올 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각 부문별로 충남이 풀어야 하고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에서 충청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남장기발전 비전을 수립<sup>1)</sup>했고 본고는 그 비전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21세기를 맞는 충남의 현황과 과제, 향후 충남의 여건 변화와 전망, 그리고 새로운 세기에 충남이 나아갈 발전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새롭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1997.

## 2. 충남의 현황과 과제

### 1) 지역 현황

#### (1) 자연환경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수도권의 포화를 완화할 잠재적 개발 가능지라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국토 중심부로서의 교량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다. 총면적은 8,590㎢로 전국토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임야가 52.9%, 농경지가 32.4%, 대지 2.3%, 도로 2.0%이지만 공장용지는 아직 0.36%에 불과하다.

충남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완만해 1,000m 이상의 산지는 하나도 없고 100m 이하의 저지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해안은 수심이 얕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넓어 활용 가능성이 크며 금강 주변의 충적평야와 구릉지는 농업에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다.

#### (2) 인문·사회환경

1997년 기준으로 충남의 총인구는 190만 3,000명으로 전국의 4.1%이며 1995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1.51%씩 감소해 왔으나 1996년부터는 연평균 1%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차령산맥을 경계로 북부지역에는 산업·교육·관광·휴양시설이 집중되어 인구가 몰려 있고 남부 농업지역에는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여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규모, 특화도, 생산유발 등에서 아직 비교우위에 있고 2·3차산업은 최근 들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충남내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수도권에서 원거리인 남부지역은 산업경제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199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의 97%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액은 생산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소비는 충남 지역 이외의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어 지역경제에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들어 성장률은 충남 북부권의 공업화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어 산업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생산인력만이 아닌 가족 전체가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 (3) 생활환경

이농현상으로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에 근접하지만 인구의 노령화로 주택의 개보수가 미흡하고 주택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용수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공업화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1997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47.0%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이고 순위로도 9개 도 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많이 뒤떨어져 있다.

쓰레기 및 분뇨의 처리율은 농업지역이 많아 높은 편이나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10.8%, 분뇨의 위생처리는 46.3%에 불과해 환경보전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 2) 과제

### (1)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

경제 인프라가 대도시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중소도시로 구성된 충남 지역경제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1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영세농의 비율이 높은 반면 2, 3차 산업은 적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 (2) 지역개발 격차 심화

수도권과 근접한 거리상 이점으로 활발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 북부권과 농업중심의 중남부권의 개발격차에 따른 지역통합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일률적인 산업화가 아닌 지역간 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전략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 (3) 지역중심성과 공간통합성의 결여

1989년 대전시의 분리이후 지역발전을 주도할 중심도시가 없어 성장 거점기능과 배후지역에 대한 파급기능이 취약하다. 대부분의 정치·행정·문화기능 등이 대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중소도시의 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역중심지의 부재는 산업의 역외의존을 가속화시켜 지역의 공간통합성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천안시·아산시 등은 수도권, 연기군의 조치원읍은 청주권, 서천군은 군산권, 금산군·연

기군·논산시·공주시 등은 대전권의 영향하에 있어 충남은 공간통합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4) 광역교통망 등 산업 인프라의 취약

상대적으로 충남의 광역교통망은 남북축에 크게 의존하는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어 지역간 접근성이 불량한 단점이 있고, 항만시설의 부족과 공항시설 부재로 지역경제활동 및 도민생활에 애로가 크다. 특히 지역교통망의 취약은 기업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하려는 국가적 전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간 개발 격차를 불러일으켜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불균형 개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활성화가 기대되는 환황해권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려면 충남의 잠재력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매우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3. 충남의 잠재력과 21세기 여건 변화 전망

### 1) 개발 및 성장 잠재력

#### (1) 무한한 해양자원 보유

충남도의 해양은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간척지가 풍부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953.3km에 달한다. 다양한 해양자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커 미래형 해양에너지 개발의 가능지이기도 하다. 특히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의 거점기능 수행과 수도권 인근항의 대외교역량 증가에 따른 포화현상으로 아산항·대산항·보령항·장항항 등은 서해안의 중추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넓은 토지자원 확보

충남은 대부분의 지역이 평균고도 100m 이하의 구릉성 평야지대여서 답(畓)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 작물재배가 가능하고 구릉지를 이용한 토지이용도 용이한 편이다. 100m 이하의 국토면적을 기준으로 한 유효 인구밀도가 세계 1위인 우리로서는 미래를 위해 아껴 둔 땅으로 볼 수 있고 21세기에 활용성이 클 것이다.

## (3) 소중한 문화자원 풍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국보 28점, 보물 86점 등 총 187점의 국가 지정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런 문화재를 복원·정비하고, 새로운 문화재를 계속 발굴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들을 관광산업으로 개발하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4) 다양한 관광자원 분포

충남에는 해양과 내륙의 다양한 자연경관을 소유하고 있고 공주·부여의 역사관광지와 국립공원 5개소를 비롯한 휴양림, 강, 온천, 계곡 등 다양한 관광지가 도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21세기에는 해양과 내륙을 연계하는 관광루트 및 관광자원의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이다.

## (5) 접근에 유리한 입지자원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이 가능하고 바다와 접해 있어 동북아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지역이다. 향후 수도권 기능의 능동적 분담과 함께 환황해권 무역과 교류가 폭등하면 대외교류와 물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 (6) 비중 높은 고부가 1차산업

충청남도는 아직 청정 전원지역으로서 농지의 생산성이 높고 세계적인 고려인삼의 재배적지로 환경보전형 농업과 영농의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21세기에는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첨단농업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 2) 여건 변화 전망

### (1) 세계화에 따른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교역량 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의 동서축이 필연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단절되어 온 충남의 서해안과 내륙지역이 동해안과 연결되므로써 국토의 지역 공간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충남은 아산-석문-대산-군장으로 이어지는 서북부 산업벨트 형성, 안면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관광벨트 형성, 내륙의 백제문화권 개발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산업·교역·관광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 (2) 지방행정 체계의 변화

다음 세기에 지방행정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지방여건에 맞는 개발행정이 활발해지고 지방자치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좀더 폭넓은 민간자본의 활용 등으로 참여행정 및 경영행정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 (3) 광역 교통·물류 체계의 변화

경부·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은 천안·아산·공주·논산 등 역세권 중심의 광역도시권 형성을 촉진할 것이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충남 서부지역의 수도권 및 호남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간 통합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보령-공주-조치원 및 서천-공주-논산간 고속도로는 충남 내륙의 발전과 동서교통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와 함께 대산항·아산항·안흥항·보령항·장군신항과 서산기지의 민항기 취항은 환황해권의 교통중심지로 충남이 발전할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고 금강주운의 개발로 내륙수송의 원활화가 가능할 것이다.

## (4)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산업구조의 변화

신산업지대의 환경문제는 충남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소득의 증가와 환경의 악화는 개발과 환경보호의 평형을 점점 후자로 기울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해안의 간척지와 내륙지역은 고급 농축산물의 생산지로 발전될 것이고 서해안은 수산물의 생산지로 많은 지역특산품 개발을 유도하여 서북부 공업지대와 함께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가 진행될 것이다.

## (5) 생활패턴의 변화

사회구성과 생활양식의 다원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집단과 지역의 이해가 충돌되어 갈등관계가 안팎으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조정할 기구, 제도, 법, 그리고 시민의식의 제고 등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의 발전과 정착이 서서히 가시화 될 것이다. 한편론 다품종, 고품질의 소량생산과 자율행정, 참여보상체계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생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 (6) 정보화·지식화 및 주민복지 욕구 증대

정보혁명과 함께 정보·지식사회로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경쟁과 협력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산업과 공간구조도 이에 맞게 재편되어 갈 것이다. 충남의 정보화 기반과 지식기반이 아직은 매우 취약하지만 국가의 정보화·지식화 정책과 부응한 기간 통신망 및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새로운 지식기반 구축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구조가 다원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표출되어 노인·아동·장애인·여성·청소년층 등에 대한 다각적인 복지기반의 구축이 실현될 것이다.

#### 4. 충남의 21세기 발전 방향

새로운 세기에 충남도가 변화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6가지로 나누어 점검해 본다.

##### 1) 초일류 도민만족 행정과 참여에 기초한 자치도정 실현

지방자치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 도민참여 촉진, 도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 도민의 자치역량 배양, 도민을 위한 생활행정 구현 등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인간중심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를 통한 첨단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경영행정을 강화하여 민간인력 및 자본의 참여와 활용을 넓히는 동시에 도민만족을 위한 위민행정의 적용범위를 꾸준히 넓혀 가야 한다.

##### 2)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산업진흥과 첨단화·고도화를 통한 자립경제의 구축

환경친화적 첨단 하이테크 산업지대 건설,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자유지대 조성, 산업정보센터 설립, 산업전문 경영인력 양성, 산·학·관·연 파트너십 구축, 환황해권 산업협력 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 전용공단의 조성 등 고생산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육성에 진력해야 한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한 충남형 농업모델 개발,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 농수산업의 기

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향토색 있는 특산단지 조성, 수출전략형 농수축산업 육성, 1.5차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해양목장화 추진 등을 통한 농림수산업의 고능률화·하이테크화를 추진해 가야 한다.

##### 3) 역사의 향기가 배어나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의 고향, 충남 창조

산업과 생활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문화적인 고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여가지대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문화행사 개최, 참가형 문화활동 진흥, 역사 해양 내륙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 등도 민간부문과 함께 실현시켜 가야 한다.

##### 4) “인간중심의 복지 충남” 및 “안전하고 쾌적한 푸른 충남” 건설 실현

21세기에는 복지와 환경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혹독한 경쟁만이 강조되고 더불어 사는 문제가 도외시된다면 새로운 세기는 희망의 세기가 되기 어렵다. 안정된 소득보장과 자활기반 조성,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아동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진취적 기상을 지닌 청소년의 육성,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건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 향상,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 등은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복지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들이다.

환경측면에서는 이미 채택되어 발표된 “푸른 충남 21”의 범도민적 실현, 환경친화적 생태녹지 축 조성, 수변 개발시 Water Front 개념 도입, 환경오염원이 근원적으로 차단된 생태도시 조성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21세기 푸른 충남 건설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다.

#### 5) 매력 있는 신생활 공간으로써의

#### 러번토피아(rurbantopia) 충남 지향

충남은 물이 부족하다. 현재도 부족하지만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음 세기의 물 부족은 심화될 것이다. 댐의 추가적인 건설과 같이 현재 구상되고 있는 공급 측면의 정책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절약 시스템 정착과 효율적인 분배망의 조성 등 정책적 배려와 도민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재 이농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 교육 및 문화시설의 보강을 통해 도시적 편익과 농촌적 쾌적함이 공존하는 소위 러번토피아(rurbantopia) 건설을 지향해 가야 한다.

#### 6) 정보창조형 지역사회 구현과

#### 세계로 열린 국제교류 거점 구축

새로운 세기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정보화의 진전일 것이다. 이 큰 변화에 맞추어 우리 지역에서도 정보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

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유치와 육성,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및 생활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고속도로 구축,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지역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3 ports(seaport, airport, teleport) 건설 등을 추진하여 환황해권 지역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21세기를 바라보며 충남의 현황과 새로운 세기에 충남이 직면할 여건을 살펴보고 6가지로 나누어 21세기에 충남이 나아갈 발전방향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번 접근은 매우 개괄적이지만 새로운 세기에 충남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부문별로 좀더 상세한 전망과 전략은 기간 열린충남 봄호의 다른 지면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여름·가을·겨울호들에서 제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세기는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더 많은 도전과 한 차원 더 높은 정책적 대응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우리의 전략과 대응이 세부적인 것까지 몰라도 큰 줄기에서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평가가 있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순응하면서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치밀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